공모후기

대학문예의 질적 도모를 꾀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시문예현상공모는 전년도에 비해 응모편수는 뒤떨어지지만 내용면에선 나름대로 깊이와 형식을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총 2백53편의 응모작중 당선작 1편과 가작 2편을, 그리고 입선작 4편을 선발하는 이번 공모에서 당선작에는 **황범주**(국문·4)의 '그리운 햇살에게'가, 가작에는 **강정구**(국문·4)의 '아름다운 이별'과 **이현숙**(국문·3)의 '미래의 꿈'이 각각 당선하였으며, 입선작은 **이익환**(국문·4)의 '낙엽이 지는 이유에 대하여' **강영식**(국문·4)의 '연탄' **김중현**(국문·2)의 '호떡 아줌마' **안만식**(영문·4)의 '밤풍경'이 각각 당선하였다.

심사는 예심의 경우 **나호열**(시인)씨가 맡아 20명의 작품을 뽑았으며, **신경림**(시인), **조태일**(동문·시인), **박이도**(문리대 교수·시인), **김재홍**(문리대 교수·문학평론가)씨등 4인이 본심을 보고, 심사위원장은 본사의 주간 **이석우** 교수가 맡았다. 심사의 기준은 주로 문학을 향하는 기본적인 틀과 접근방식에 대한 진지성의 확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통찰과 해석력의 구비 여부, 지속적인 탐구를 통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여부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나(총72편) 작품수준은 시를 전공하는 국문과 학생들에 비해 많은 부족함을 보였다. 사회과학대학 학생들의 비교적 높은 참여(총3편)는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었다.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도 대학문예의 활성화와 문예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주보가 되기위해 성심껏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독자들의 많은 격려와 충고 있기를 바란다.

〈문화부〉

제2회 詩문예 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선작

그리운 햇살에게

아침 인사도 못하고
안전등 불빛에 하루를 산다
지금쯤 너는
갱입에 한아름 따사로움을 지펴 놓고
겨울 바람이 얼려 놓은 고드름을
부드럽게 부드럽게 어루만지겠구나
기계소리 발파소리 직업병 난청에도
따스한 내 손길에 녹아 흐르는
땅 밑 보드라운 물소리 숨소리는
답답한 광부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친다

퇴항 전차에 매달려 나온 저녁 어스
름
햇살은 짧은 겨울 [illegible]
건너편 산자락에 잠주[illegible]
[illegible] 아쉬운듯 바라보는 광부의 이마 위엔
흐린 안전등 불빛이 깜박인다
내 고름 숨결 닿지 않는
계곡의 소나무는 눈 덮어 쓰고
이 추운 계절 매운 바람을
평화롭게 위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보여다오 햇살이여!
어둠 속에서 하루를 매달고 나온 광
부처럼
네 뜨거운 입김이 언 땅을 어루만져
눅눅해진 땅거죽 위에
파란 들풀 키워내는 비밀을
소곤소곤 들려다오
바다 건너 산 넘어 어둔 저녁에도
노동자의 고운 봄이 걸어오는 소리

황 범 주
〈국문·4〉

가작

미래의 꿈

어머니 시큰한 눈물잠 속으로 돌아누우신 아버지. 야위어 구부러진 손발, 물렁물렁해진 뼈마디로 단단한 술 들이부으며 돌아오신다. 아버지 잠드신 입술엔 이미 삼켜버린 창백한 미래의 꿈. 막힌 핏줄은 가려움 참지 못해 터져 내리고 외로운 마음은 자꾸만 지난 날의 벗들 그리워 손 내밀건만, 옛 추억에 따갑게 물든 체념처럼 흐린 핏물 흘리신다. 울고 웃으며 조금씩 조금씩 잊혀질 사람들 망연히 불러보시던 아버지. 적막한 방안에 저녁해 지면 하나씩 하나씩 당신살아갈 날들 나직히 지워가시던 아버지.

이 현 숙
〈국문·3〉

아름다운 이별

꽃망울인 나
뿌리인 너
내 가장 깊은 곳
생명 불 붙이는 너
네 뜨거운 피 솟아
나는 눈을 뜬다
너가 땅 속 깊이 들어가
물 한방울 찾을 때마다,
다섯 손가락 펴고
나는 꽃이 된다
내 향기에 취해
절벽처럼 위험한 청춘이 가고
며칠 밤 폭우가 내린다
나에 대해 생각하다
점점 너를 궁금히 여기며
나는 떨어진다
빗발에 파헤쳐져 드러난 너와
처음 눈으로 만나는 순간
나를 피운 것이
바로 너란 것을 비로소 안다
다시 봄이 올 때까지
우리는 헤어져 있다

강 정 구
〈국문·4〉

자기극복·민족어의 완성

심사평

◇지난 5월 30일 오후2시, 본사 회의실에서 2시간여에 걸쳐 시문예 심사를 진행했다

문학에의 높은 열기와 수준 반영
당선작, 끈질긴 민중적 생명력 돋보여

예심을 거쳐 올라온 20여 예비시인들의 작품 100여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새삼 경희인들의 문학에 대한 열기와 수준에 고무되지 않을수 없었다. 그만큼 수준들이 일정한 정도 이상이었고, 그중에 몇사람의 경우는 기성의 그것에 육박해 있었다. 대학주보의 '시문예현상공모'가 이제 그 뿌리를 잡아가고 있는 증거라고 하겠다.

본심에 넘어온 작품을 우리는 서로 돌려가면서 읽고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가려내기 시작하였다. 그결과 10명정도의 학생들이 최종심에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그 중에서 대상작품으로 오랜 시간의 논의 끝에 '그리운 햇살에게'(황범주)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이별'(강정구)도 함께 거론되었다. 아울러 '미래의 꿈'(이현숙)도 좋은 평가를 받아 결국 '아름다운 이별'과 '미래의 꿈'을 가작으로 결정하였으며, '낙엽이 지는 이유에 대하여'(이익환) '호떡 아줌마'(김중현) '연탄'(강영식) '밤풍경'(안만식)등을 입선작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대상수상작으로 결정한 '그리운 햇살에게'는 탄광근로자의 삶을 노래한 노동시라고 하겠다. '기계소리 발파소리 직업병 난청에도/따스한 네 손길에 녹아 흐르는/땅밑 보드라운 물소리 숨소리는/답답한 광부의 가슴속에 차고 넘친다'라는 한 구절처럼 어둔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속에 삶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끈질긴 민중적 생명력을 담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 경우라고 하겠다. 좀 더 노력하면 큰 시인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아름다운 이별'은 서정의 깊이있는 내질화가 관심을 끌었다. 또한 '미래의 꿈'도 내면화한 삶의 서정과 그 표현력이 돋보이는 경우였다고 하겠다. 이 두사람도 좀 더 노력하면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낙엽이 지는 이유~'와 '호떡 아줌마' '연탄' '밤풍경'등도 서정의 깊이와 신선한 표현이 인상적이었다고 하겠다.

그러고보면 경희인들의 문학, 특히 시적인 저력과 수준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근래 들어서 시단에 진출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어서 이제 바야흐로 경희문학의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분위기이다.

시라고 하는 것은 진실과의 대결이며 언어와의 격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자기극복과 구원의 길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사회·역사를 향해 열려있는 길이고 민족어의 완성을 지향하는 일이다. 개성이 있으면서도 사상성이 있고, 그것이 예술적인 높은 성취를 획득해 가야만 할 것이다.

모쪼록 입상자 여러분의 정진을 빌며, 이번 기회에 낙선된 사람들도 더욱 분발하면 더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것이다.

큰 시인이란 좌절속에서 힘차게 일어설 줄 알고, 시련과 역경속에서 스스로 강해지고 깊어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심사위원:신경림, 박이도, 조태일, 김재홍(글)

당선소감

경희의 대지에 튼튼한 삶의 문학을…

당선작 '그리운…'의 황범주

구름에 젖은 달이 어슴프레 빛을 내려 조국의 어둔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재잘거림처럼 푸른 나뭇잎들이 지나는 바람에 살며시 흔들리는 이 밤, 다시 한 번 나의 삶과 문학과 조국의 내일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 겨울 함께 막장에서 일하던 노동형제들이 떠오릅니다. 일에 익숙치 않은 나에게 친형님처럼 대해 주시던 종열형, 재성형 등…

그 분들은 지금도 어두운 막장 안에서 한 광차의 탄을 캐기 위해 하나 뿐인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텐데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떠나오던 날 나에게 좋은 글 써서 지독한 사장에게 본때를 보여주라던 굴진공 김씨 아저씨의 희망사항을 어찌 감당해야 할 지, 시 몇편 써 놓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만족 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또 단체 협약을 개악(改惡)하려는 자본가의 강짜에 힘들어 하는 삼화휴즈 노동조합 동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글을 쓴다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 한달 동안 계속된 젊은 넋들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정말 어디에 눈 돌려 보아도 상흔없는 날들이 없는 힘든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폭압 속에 글은 무엇이고 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문학에 힘이 있는가고 시를 쓰는 후배가 물었을 때 나는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문학엔 힘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제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튼튼히 끌어 안고 우리의 꿈과 희망을 형상화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문학의 힘이고 문학하는 사람의 실천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 원인인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올곧게 바라보고 우리 민족, 민중들의 살 길을 열어 나가는데 한 줄의 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밤을 새워서라도 고민하고 써야 할 것입니다.

동아리방 창 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저마다 다른 크기와 색깔로 무리지어 빛나고 있습니다. 이 밤도 민중이 주인되는 꿈을 꾸렵니다.

자주경희의 문예창작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학주보'와 심사를 해주시고 여러모로 부족한 작품을 뽑아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작 '미래의 꿈'의 이현숙

세상속에서 쓰고싶다

서툴기만 한 시에 주어진 큰 상을 어찌 받아야 할 지, 부끄럽고 당혹스럽다.

안이하게 지나쳐 온 삶을 반성하는 의미로, 오래 전에 떠나보냈던 시를 다시 끌어안게 된 것이 겨우 올해 초. 지금의 기쁨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하기엔 그 동안의 고통의 양이 너무도 적은 것을.

거의 매일 인간의 죽음이 꽃잎처럼 떨어져 내린, 잔혹했던 오월. 그럼에도 나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좀처럼 부딪치려 들지 못했다. 속으로만 멍드는 아픔으로, 웅크려 시를 쓰고 고치던 밤들. 새벽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면 '시 앞에서 나는, 가짜다'라는 자괴감만이 귓전에 윙윙 울리곤 했다.

그렇듯 턱없이 거대하게 혹은 왜소하게 느껴지던 시에 대하여 이제 무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이제 내 살아갈 날들에 대해, 섣부른 절망을 짐지우지는 않으리라는 생각 뿐이다.

이 땅에 발 붙이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쓰고 싶다.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과 부모님, 풍호와 많은 詩友들, 아끼는 사람들에게 감사 드리며, 부족한 사랑을 보내드린다.

나를 건져내는 길

가작 「…이별」의 강정구

어떤 구덩이로 빠진 느낌이다.

4월의 어느날, 부산을 내려 간 적이 있었다. 친구들에게 꽤 걱정을 시키고, 무작정한 여행이었다.

아마 2박3일을 걷다, 쉬다, 남의 차를 신세지면서, 경상도의 해안가를 헤맸다.

그 무엇이라고 할까. 구태의연한 내 생활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다. 휴지같은 삶을…

걷는다는 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란 평범한 것이다. 걸을 때마다 광안리에서 송정으로, 송정에서 해운대로, 해운대에서 울산·포항으로 펼쳐지는 길의 세계 바로 내가 느껴지지 못했던 것이 물기 스미듯 젖어온다. 나는 이런 나의 여행이 바로 나를 바꾸는 일이라 회상한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서울의 신선함은 내 생활을 기쁘게 했다. 웃음과 신기함을 가지고 며칠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다시 어떤 구덩이에 빠진 느낌이다.

그럼 이것은 무얼까. 나는 다시 내 생활을 생각했다. 내가 빠지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다. 구덩이 자체가 내 의식의 내부이다.

다시 고민하면서 나는 산이 되기로 결심했다. 혹은 하늘이나 새….

나를 뽑아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리고 자꾸만 나를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주는 선후배와 동기들에게 고맙다. 앞으로도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나도 극복하겠다.